

# 듣고... 만나고... 찾고... 보고...

## 전북문화관광재단 소식지 '마중 7호' 발간 기존 소식지를 새롭게 구성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창립 기념 일(4월 19일)을 맞아 재단 소식지 '마중 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마중 7호'는 기존 소식지의 구성을 새롭게 해 있다(재단 사업, 듣다(칼럼), 만나다(인물), 찾다(문화), 보다(관광) 5개 영역으로 재구성해 재단 대표사업과 전북도 문화·관광·예술 전반에 대한 이슈 및 재조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있다'에서는 올해 각 팀별 사업을 홍보하는 '새로운 도약 그리고 재단'을, 재단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재단 칼럼'을,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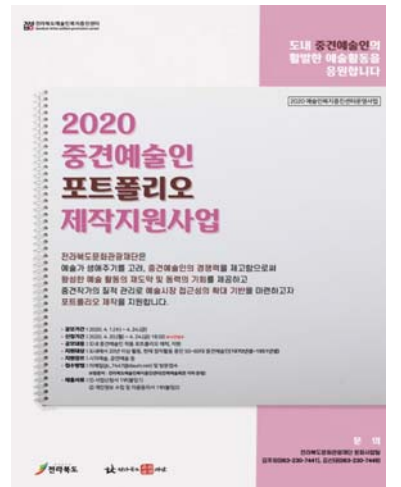
고 전북관광브랜드공원에 대한 '뮤지컬 흥도1589' 등을 게재했다.  
특히 '재단 칼럼'은 올해 전라북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재단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정책기획팀 구혜경 팀장이 원고를 담았다.  
'듣다'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친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계와 미투 이후 전북 문화예술계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지역문화 이슈'로 다뤘다.  
'만나다'에서는 '화제의 인물'로 남원농악의 명인 류명철 남원농악보존회장과 전라북도 청년아티스트 고니밴드를, '우리 지역 예술가'로 정인수 펜화작가를, '재단이 주목하는 청년 예술가'로 도내 청년예술가 5인 천승환, 지현미, 이상욱, 이보영, 정호영을 소개했다.  
'찾다'에서는 전북의 마을(기발)에 관한 기록을 엮는 '전북을 찾다'와 '원주

생강'의 지역 문화에 관한 이야기 '숨은 문화 1인치', 그리고 전라북도 연극 역사를 되짚어 보는 '전북 문화 재조명' 등을 실었다.  
'보다'에서는 전북 음식을 역사와 함께 여행하는 '역사 속 음식 이야기', 지역 마을축제를 만나보는 '오감만족 전북 관광', 전주 남고산성과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의 공감을 만나보는 '문화공간 탐방' 등을 기획했다.  
김정인 팀장은 "소식지 '마중'은 재단 활동과 도내 문화·예술·관광 정보를 담아 도민의 귀에 생생히 전하는 기관의 대표지로 특히 IT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에게 유용하게 읽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과 소식지 구독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홍보팀(063-230-747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5060 중견작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전북문화고나광재단,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지원사업 공모  
오늘부터 24일까지 이메일 접수 가능

전북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예술인복지 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창작활동 중인 50~60대 중견작가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0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이메일 및 방문 접수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현재 창작활동 중인 50~60대 중견작가다.  
지원내용은 활동시기별 대표작, 작가프로필, 작가노트 등의 활동경력을 체계화해 정리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2020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은 예방전북의 중추적인 역할은 담당했던 중견예술인에 집중했다.  
청년과 원로세대 간 샌드위치 세대로 지원체계와 방식, 시스템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지원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중견예술인이 새로운 동력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해는 총 5명의 도내 중견예술인이 선정돼 각각 개성 있는 결과물을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예술가의 생애주기를 고려, 중견작가 맞춤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중견작가들의 활동성을 회복하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며



청년기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창작 결과물의 질적 관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출범 3년 차인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올해도 도내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운영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 활동 증진을 통한 중앙의 복지사업 참여 확대, 역량 강화 재교육, 예술인 특례보증지원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문화사업팀(063-230-7441, 744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세계적 화가의 작품, 올 여름에 선보

군산예술의전당, 7월 4일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 전시회  
체험전시 통해 실제와 동일한 레플리카 작품으로 관람 가능



군산예술의전당이 2020년 한국문화예술회 관연합회 공모사업 중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세계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 작품을 올 여름에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작품비 4,700만원 중 70%를 국비로 지원 받아 운영되며 오는 7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31일간 군산예술의전당 2~3 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전시 '클림트의 황금빛 비밀'은 구스타프 클림트의 초기 작품부터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키스, 유디트 등의 명화와 드로잉 작품 등을 실제와 동일한 사이즈의 레플리카 작품으로 한자리에 관람할 수 있다.  
구스타프 클림트(1862년 ~ 1918년, 오스트리아 출신)는 서양 미술사에서 상징적이고 몽환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여성의 관능미 표현에 뛰어난 작가로 명성을 떨쳤다. 그의 작품은 찬란한 황금빛,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성과 사랑, 죽음에 대한 주제들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에게 칭송받는 화가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좀 더 쉽고 재밌게 클림트 작품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슨트(전문안내인)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평일, 주말 총 하루 4회씩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또 직접 그려보고 참여해볼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해 관람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유자 예술의전당 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국비공모사업을 통해 전 연령대의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제공하고 예술의전당에서만 느낄 수 있는 문화 향유기회를 마련해 시민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 9월부터 '소셜 갯들을 만나다' 진행

김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지역문화관 특성화 공모 선정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소장 신형순) 산하 아리랑문화관은 지난 7일 한국문화관광협회에서 시행하는 '2020년 지역문화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9월부터 문화답사 프로그램 '소셜 갯들을 만나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조정래 소설 '아리랑'의 배경지 죽산면, 임영춘 소설 '갯들'의 배경지 광활면 일대를 답사하는 과정을 통해 일제강점기 지역 역사와 김제 정체성 교육을 현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김제시민, 교사, 청소년 등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답사는 총 4회를 실시하며 회당 25명 내외를 선착순 모집하여 하루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답사코스는 다음과 같다.  
아리랑문화관 → 아리랑문화마을 → 구 하시



모토농장사무소 → 화양 정현섭 생가(장화동) → 학당 갑문지 - 광활 간척지 → 광활 방조제 → 망해사 - 새만금 바람길 - 새창이 다리 -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참가비는 없으며 간식, 식사, 보험도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아리랑문화관 담당자(540-4990)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태기 기자

#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